

I. 선사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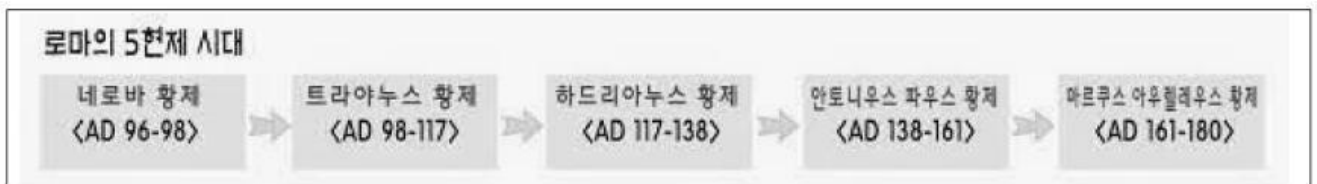
주제 8) 로마의 등장과 발전(2)

(교과서: p.4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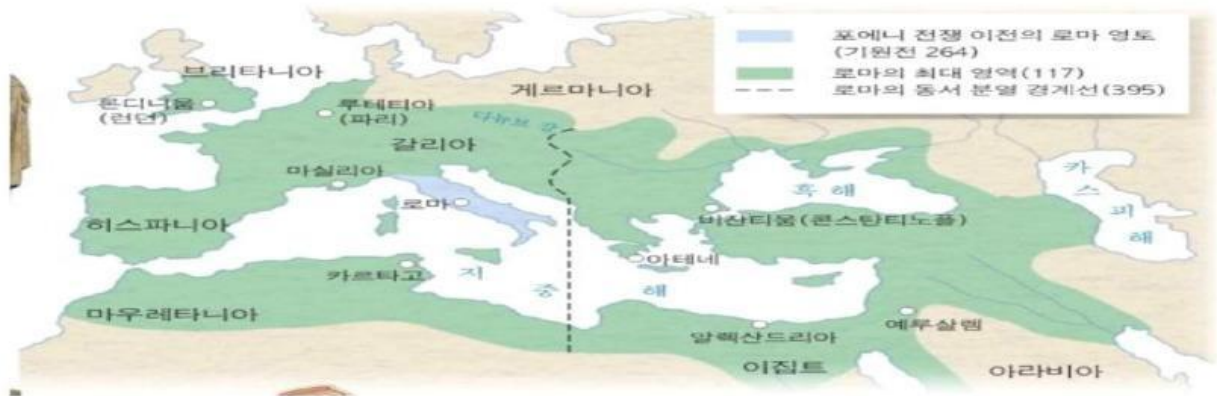
학 교	
학 번	
이 름	

1. 로마 제정의 수립

- 1) ()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국가의 권력을 장악
 - ① 당시 국가의 권력을 모두 거머쥐었으나, 원로원과 로마 공화정의 존재를 인정
⇒ 자신의 이름을 원로원 명부의 최상단에 등재함으로써 ()를 자처함
 - ② 원로원으로부터 ()라는 호칭을 받음
 - ③ 공화정의 체제를 살리면서 군대의 명령권을 비롯하여 집정관, 호민관 등의 직권을 가짐으로써 단독 지배를 합법화하는 지배체제를 선택
- 2) () 이후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은 황제가 되어 통치
- 3) 로마 황제 권력의 전성기()



- ① 일시적인 제정의 위기 이후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연달아 등장하며 로마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옴
⇒ 200여년 동안 로마의 안정을 가져온 ()
- ② 정치적 안정과 국경의 안정, 무역의 발달로 로마의 번영이 나타남. 로마의 최대 영역 확보
하드리아누스 이후 로마의 확장을 실시하지 않고 수세적, 방어적 입장으로 전환



2. 로마 제정의 위기와 극복노력

- 1) 로마 제정의 위기
 - ① ()황제 시대 도래 : 50년간 26명의 황제 즉위
 - ② ()족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국경 위협으로 로마의 위기가 심화
 - ③ 로마의 확대가 중단되자 노예 공급 차단, 귀족들의 노예 노동을 통한 농장 운영의 어려움

2) 로마 제정의 위기 극복 노력

① () 황제

㉠ 제국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제국을 ()개로 분할하여 통치

동방 정제(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폰투스, 이집트, 소아시아를 맡았고, 동방 부제(부황제) 갈레리우스는 판노니아(현재의 헝가리), 모이시아(불가리아), 트라키아를 위탁받았다. 서방 정제 막시미아누스는 이탈리아와 아프리카를 담당했고, 서방 부제 콘스탄티우스는 갈리아, 에스파냐, 브리타니아를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해서 로마제국은 사실상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었다. 4분 체제라고 하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선임 황제의 위치를 갖고 있었다. 이는 제국을 넷으로 분할한 것이 아니라, 방위 책임 구역을 4곳으로 분리하여 담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 동방의 전제군주정을 수용하여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함

㉢ ()실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황제는 1,000여개의 물품과 여러 직업에 대해 최고가격을 지정하여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였는데 수요-공급 원리에 무지한 채 경제흐름을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에 서기 301년에 모든 종류의 물품에 대한 상한가 및 모든 직업에 대한 최고임금을 설정하는 그의 유명한 칙령을 발표했다. 대표적 예를 보면, 갈은 콩은 100, 갈지 않은 콩은 60, 말린 강낭콩은 100 데나리우스였다. 수의사의 동물의 발굽 손질은 한 마리당 6 데나리우스였다. 수의사가 동물의 머리에서 피를 짜내는 일은 한 마리당 6 데나리우스였다. 작가들이 이류급의 글을 쓰는 데는 100행의 글 당 20 데나리우스가 최고가격으로 지정되어 그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② () 황제

㉠ 4분할 통치 포기, 단일 황제 체제 복귀

㉡ 수도 천도 : 로마 → ()



㉢ 화폐개혁, 전제군주제 확립을 위해 노력

㉣ 313년 ()을 통해 ()공인

그것은 기독교도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게도 각자가 원하는 신을 믿을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 신이 무엇이든, 통치자인 황제와 그 신하인 백성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준다면 인정해야 마땅하다. 우리 두 사람은 모든 신하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최선의 정책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3) 로마의 멸망

①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통치 이후에도 로마의 통치가 나아지지 않음

② 로마의 통치력이 약화되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가 ()

③ 로마의 국력이 약화됨에 따라 로마인들만으로 국경을 수비하기 어려워지자 훈족에 의해 쫓겨온 ()족을 용병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④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후로 더 이상의 영토확장 및 노예 수급이 이뤄지지 못하자, 귀족들은 가난한 자영농을 자신의 대토지로 포섭하여 이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는 ()를 실시함.

⑤ 476년 분열된 서로마는 ()의 용병대장인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함.